



제목	Byzantium and the Crusades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Bloomsbury Academic
발행일	2014. 11. 20.
저자	Jonathan Harris
출판도시	London ; New York
페이지수	270
ISBN 또는 ISSN	978-1780938318

내용 요약

이 책은 십자군 전쟁 기간 동안 비잔틴 제국 통치자들의 생각을 연구한 책이다. 저자는 비잔틴 제국과 서유럽, 십자군 군대, 십자군 파견국가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요소가 비잔틴 제국의 특성과 비잔틴 제국을 지탱하는 이데올로기에 있다고 주장한다. 학계에는 비잔틴제국과 서유럽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주장들이 오랫동안 대립해 왔다. 그 상반된 주장은 한편으로 ‘친서유럽 대 반비잔틴’, 다른 한편으로는 ‘친비잔틴 대 반서유럽’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대립의 핵심은 종교 갈등인데, 그 갈등의 기초는 11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신학적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인 데에 있다. 저자는 십자군전쟁의 역사에서 비잔틴제국이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후한 평가를 진지하게 검토하면서 학계의 오랜 대립을 해결하고자 한다. 저자는 기독교세계의 황제의 관점에서 비잔틴제국의 정책을 조망하고 설명한다. 그 결과, 저자는 비잔틴제국이 기독교세계의 수장으로서 이상화된 황제 이미지에 현실정치를 종속시켰다고 주장한다. 비잔틴제국과 서유럽의 차이의 기초를 설명해 내는 저자의 이러한 접근방법은 학계에서 높게 평가된다.

이 책의 가장 핵심은 4차 십자군 원정을 다룬 부분이다. 저자에 의하면 4차 십자군 원정은 비잔틴제국의 이데올로기와 외교정책의 실패였다고 한다. 비잔틴제국은 방어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외교정책을 오랫동안 고수해 왔다. 기본적으로 그 정책의 목적은 제국의 확장이 아니라 유지였다. 그랬기에 비잔틴제국은 이웃국가의 영토를 정복하느라 고비용과 위협을 감수하는 대신에, 아부와 위협과 뇌물수수물 수반한 협상을 통해 이웃국가들이 비잔틴황제의 종주권을 인정하도록 설득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4차 십자군 원정은 비잔틴제국의 이러한 외교정책이 실패한 결과라고 저자는 주장한다.